



인슐린 생산세포 이식으로 당뇨병 치료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를 환자에 이식하는 수술이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에서 성공함으로써 어린이 당뇨병환자가 날마다 인슐린주사를 맞아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고, 중증의 합병증을 예방해 줄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술의 목적은 당뇨병환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 날마다 인슐린주사를 맞을 필요를 없애는 데 있다. 캐나다의 한 환자는 19개월 전에 세포 하나를 이식 받은 후 지금까지 자체 인슐린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한 당뇨병환자는 이 수술치료후 9개월째 인슐린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수술이 신장이식을 받은 당뇨병환자에게만 적합하고 환자의 신체가 신장을 거부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여러 연구팀은 이식거부 현상을 더 줄이기 위해 기증되는 세포를 수정하는 방법을 고안중이며 췌장 자체 또는 그 일부를 이식하던 종전과는 달리 췌장의 인슐린 생산세포만을 이식하는 외상이 적은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술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식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세포를 수집하고 배양하는 일이다. 매번 수천개가 필요해 필요한 수의 세포를 구하려면 보통 두사람의 신장 기증자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충분한 수가 수집될 때까지 세포를 냉동,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로 세포제공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극복하고 있는 상태.

영국 레스터왕립진료소의 피터 벨 교수는 『이 수술이 환자가 날마다 인슐린주사를 맞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어린 당뇨병환자가 장님이 된다거나 신장이상이 생기는 등 장기간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거부억제제를 오래 사용하지 않고도 세포를 기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형간염, 유아기에 예방해야

미국 보건관계자들은 간질환을 흔히 유발시키는 B형간염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아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최근 주장했다.

질병관리센터(CDC)의 관계자들은 연속적으로 세 번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미국에서 B형간염바이러스의 전염을 궁극적으로 제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B형간염은 혈액 또는 성접촉으로 전염되고 있으며, 전염될 소지가 높은 그룹은 마약복용자와 B형간염이 전염되었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B형간염백신은 대체적으로 B형간염에 걸릴 소지가 높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투여됐었다. 하지만 CDC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감염될 소지가 무척 높은 그룹을 예방접종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지금까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1백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은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B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질병예방은 가족력조사부터

“너무 늦기 전에 당신 조상의 병력을 살펴보라” 최근 시사주간지 뉴스 위크지는 조상의 병력을 앞으로써, 정신분열증과 같은 유전적 특성을 지닌 질환은 예방할 수 없지만 심장질환이나 암의 일부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근래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이 질병과 유전성과의 연계성을 밝힘에 따라 家係圖에 잠복해 있는 질병을 알아두는 것이 점점 중요시 돼왔다. “예방관리 보드게임에서의 실마리와 같다”라고 루이지애나 쉬레브포트의 가정의 마이클 프레밍박사는 전제하고 “의사가 앞으로 닥쳐올 질병을 예방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조상의 병력을 조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족보에 의지하는 것 외에 나이든 친척과 대화를 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계보의 기록이 항상 사망의 원인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의학 용어도 해를 거듭해가면서 변해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consumption’이라 불렀던 것은 ‘tuberculosis’였고 ‘dropsy’는 ‘congestive heart failure’이었다는 것.

“만약 조부모가 상당량의 체중을 잃고 갑자기 몇 년 전에 사망했다면 조부모는 아마도 암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오리건주 포트랜드의 가정의 토마스 R.리어든 박사는 지적한다. 리어든 박사는 아울러 심장병에 걸린 50대 가족력을 연구하지 말고 20대 30대에 미리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 ㉞